

광주시의회,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상향...市 '반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용적률 현행 400%서 140% 상향
“모든 권한 활용 바로잡을 것”
환경단체 “삶의 질 악화 폐기돼야”

광주시의회가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가 담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광주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환경단체도 “고밀도 주거 개발로 주거의 질이 악화된다”며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12일 열린 제3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일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40% 이하로 140%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심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충장로·금남로지역, 상무지구 등이며, 이곳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앞서 시의회는 본회의 전 강기정 시장이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요구함에 따라 전체 의원 간담회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논의 및 한 차례 보류, 수정 의결을 통과시킨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곧바로 반발했으며 강 시장은 항의의 뜻으로 의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을 향하지 못한 시의회의 의정활동이 아쉽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해당 안건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돼 왔고 광주시가 계속 반대했던 안건”이라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민생을 위해 시급한 안건도 아님에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계획조례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 충장로·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하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해 130세대까지 확대 공급할 수 있다”며 “이는 곧바로 학교와 도로 부족으로 이어져 도시 전체의 주택 미분양이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상업지역 주상복합 시설의 상가 면적 의무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하는 등 상가 공실을 해소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업지역에 주거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시의회의 의정 활동이 시민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수차례 반대 이유를 설명했고 신수정 의장에게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하지 말고 시·시의회·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과 숙의를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됐다”면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환경단체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2면에 계속**
노병하·정성현 기자



만학도들의 졸업식 광주희망평생교육원 초등 및 중학 졸업식이 12일 광주희망평생교육원 교실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한미준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만학도 졸업생들이 졸업장과 꽃다발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정부·여야, 대전 초등생 참사 ‘하늘이법’ 추진

이주호 “정신질환 교원 직권휴직”
권영세·이재명 조문 “재발 방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

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도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신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안심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서 재발 방지

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비극적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표는 고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ilbo.com

에어렉스 AIRREX 2025 70% 정부지원 이동식 에어컨

최고 명품 1등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만의 특혜!!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신청기간 선착순 (현재 접수중)

	HSC-5400 R	HSC-6100 R
판매금액	1,600,000	1,800,000
정부보조금	1,041,000	1,199,000
자부담금(약)	559,000	601,000

※부가세 별도입니다.

담당자 : 총괄이사 상담문의 010-7532-5326

2025년 고소작업대 1000만원 정부무상지원

★고소작업대★를 아래와 같이 정부에서 1,000만원 무상지원 구입건입니다.

정부에서 작업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해 이동식 고소작업대를 아래의 (자사부담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 900~1,100만원 / 무상지원

지원내용 고소작업대 (지주코리아/수성)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신청기간 선착순 (현재 접수중)

	품목 (작업발판높이 기준)	판매가격	공단보조금	자체부담금
지주코리아	JC-30 (8m)	20,500,000원	11,182,000원	9,318,000원
	JC-31 (10m)	22,500,000원	11,182,000원	11,318,000원
	JC-40 (12m)	26,500,000원	9,086,000원	17,414,000원
수성	SSL-0812H (8m)	21,000,000원	11,182,000원	9,818,000원
	SSL-1812H (10m)	22,500,000원	11,182,000원	12,818,000원
	SSL-1212H (12m)	27,000,000원	12,086,000원	14,932,000원

※ 고소작업대 4m/6m도 있음 ※부가세 별도입니다.